

지스트 국제환경연구소, 2021 여수정상회의 과학기술 세션 참여



▲ 2021 UEA 여수정상회의 과학기술세션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) 국제환경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오후 여수시 해양엑스포에서 열린 2021 여수정상회의(여수시 주최, UEA*사무국 주관)에서 '기후위기 적응과 과학기술' 세션을 통해 UEA 네트워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였다.

* UEA(도시환경협약, Urban Environmental Accords) : 국제기후환경센터가 운영중인 51개국 156개 회원도시 연합체, 시장급 국제회의인 'UEA 정상회의' 격년 개최 중

기후위기 적응과 과학기술세션에서는 △기온상승 및 해수면의 변화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된 식량부족, 해양산화, 자연재해 등으로 악화되는 보건상황과 기후위기에 취약한 북한 현실을 알아보았다.

또한, △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스마트팜의 활용이 일상생활에 가져올 변화 그리고, △지구온도가 0.5C씩 상승할 때마다 벌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화재 및 폭우 빈도 등을 예측하는 모델링을 통해,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.

더불어, △기후 위기에 대한 세계적 동향과 노력,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(UNFCCC)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(CTCN)의 기후변화적응 프로젝트들과 캄보디아 내 기후변화상황 및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.

과학기술세션을 주관한 지스트 국제환경연구소 관계자는 “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과 노력에 보탬이 되고, 더 나아가 남해안 남중권의 COP 28 유치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”라고 전했다.